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2 권 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매주 화요일 오후 5 시 30 분 - 6 시 (혹은 사전예약)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7 시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미사성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화답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래들을 이끄시니, 거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 2 독서 민수 6,22-2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복음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루카 2,16-21 갈라 4,4-7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 월 1 일	이 클라라	지 모니카	허 벤자민, 전 라이언
1 월 8 일	이 마틸다	전 니콜	허 벤자민, 전 라이언
1 월 15 일	이 클라라	김 헬레나	허 벤자민, 전 라이언
1 월 22 일	이 마틸다	지 모니카	성인복사
1 월 29 일	이 클라라	지 모니카	허 벤자민, 전 라이언

고백성사: 매주 월-금 평일미사 15 분 전 또는 사전예약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2 월 25 일	\$	\$	\$

*매월 첫째, 셋째 주일 미사에는 2 차 봉헌이 있습니다.

교무금 카드: 2012 년도 교무금카드를 배부할 예정이오니, 카드를 못 받으신 분은 한인공동체 임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공 동 체 소 식

기도회 모임: 1 월 4 일 (수)

나눔주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돌립시다.'
(매일미사책 1 월 8 일 주님공헌대축일 65 p. '오늘의 묵상' 참조)

성체조배: 1 월 5 일 (목) 저녁 7 시

1 월 성체조배는 첫째 목요일인 1 월 5 일 저녁미사 후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임원회의: 1 월 10 일 (화) 저녁 7 시

1 월 한인공동체 임원회의는, 1 월 10 일(화) 저녁 7 시입니다.

소공동체 구역모임: 1 월 15 일 (주일) 미사 후

1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1 월 15 일 주일 미사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전야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해 봉사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Happy New Year!

말씀의 이삭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최인호 베드로 | 소설가

오랜만에 ‘말씀의 이삭’ 란을 통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매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썼던 것이 1999 년이니 벌써 13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는 몸이 건강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로 짧게 병상에 누웠던 적은 있어도 병에 걸려 입원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병원은 저와 상관없는 별도의 공간이며 운이 나쁜 사람이나 가는 격리된 수용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새 5 년째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란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금언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된 요즘입니다.

2008 년 여름, 저는 드디어 ‘내 차례’ 를 맞아 암이라는 병은 선고 받고 가톨릭 신자로서 앓고, 가톨릭 신자로서 절망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기도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희망을 갖는 혹독한 할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 할례식을 ‘고통의 축제’ 라고 명명하였으며 앞으로 한달동안 ‘말씀의 이삭’ 란을 통해 아직도 출구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의 피정 기간동안 느꼈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주보의 지붕 위로 올라가 외치려고 합니다.

저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불어 닥친 태풍은 다른 아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오로가 말한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적지 않은 것은 그 때문 (1 코린 13,30)’ 이라는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암의 선고는 미국 작가 N 호손이 쓴, 간통한 죄로 ‘A’ 란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여주인공의 낙인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머리를 깎은, 천사와 같은 어린 환자의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은 제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자기의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아이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요한 9,3)’ 순간 저는 비로써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병원 안에서 수많은 환자들, 아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 속에서 소중한 우리의 아빠, 엄마, 딸, 아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온갖 병으로 스러지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엄숙한 시간’ 에서 노래했습니다.

“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없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덕분입니다. 우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없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울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병으로 십자가를 지고 신음하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 서울주보에서-